

햄버거, 그 베어 무는 즐거움에 관하여



김 나 래 총무팀

소고기 패티에 치즈, 야채, 소스, 그리고 빵의 조합. 바로 햄버거다. 나는 앙~ 하고 햄버거를 베어 무는 즐거움에 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한다. 그러기 위해선 앙 베어 물지 못했던 때를 이야기 안 할 수 없다.

몇 년 전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었던 때의 일이다. 사람 많은 곳에서 누군가에게 떠밀려 앞으로 넘어진 나는 위 앞니 두 개가 부러졌다. 넘어져 다칠 때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누구인지, 여기가 어디인지,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했다. 그 건 아드레날린의 작용이었는지도 모르겠다.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고 피투성이 얼굴로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손을 더듬거려 쪼으며 부러진 이빨들을 찾았다. 모든 음식은 또렷한데 정작 고통은 느낄 수 없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 했다.

그러나 정작 고통은 그 이후에 찾아왔다. 치료를 위해 부러진 이를 뽑자 그 주변의 이가 내려갔다. 씹을 때마다 내려간 이가 아랫니와 부딪쳐 진통제로도 진정되지 않는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다. 음식을 씹는다는 게 힘들었다. 매일같이 죽만 먹어야 하는 나날이 계속 되었다.

먹지 못하게 하면 더 먹고 싶다고 했던가. 햄버거 같이 이로 베어 물어야 하는 음식은 먹을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서였을까. 야속하게도 햄버거가 정말로 먹고 싶었다. 하는 수 없이 햄버거를 사다 집에서 칼로 잘라 먹기로 하고 룸메이트랑 햄버거를 사 가지고 기숙사로 돌아왔다. 햄버거를 먹으려는데 룸메이트는 내가 햄버거도 베어 물 수 없다고 웃으며 말했다. 가족 같이 친했던 룸메이트는 농담이었지만 당시 나는 그 농담을 웃음으로 받아주지 못했던 것 같다. 햄버거조차 베어 물 수 없는 내 처지가 처량하기 그지 없었기 때문이라.

다치는 것, 혹은 신체 중 어딘가를 상실하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당시도 물론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그 상실로 인해 일상의 사소한 나의 생활이 일그러지는 데 그 진정한 파괴력이 있다. 아스팔트에 얼굴이 처박히는 일은 물론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보다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'다쳐서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못하는구나'라는 생각이었다. 이런 생각으로 사고가 틀 지워지면 일상생활에서 매번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.

그렇지만 한편으로 나는 상실을 통해 애초에 내가 그것을 지니고 있었음을 반대로 확인했던 것 같다. 이빨은 늘상 거기 있었지만 내게 그것이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살지는 못했다. 이가 부러지고 나서야 나는 햄버거를 베어 무는 행복감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느끼게 되었다.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상실은 내게 주어진 것, 내가 가진 것 전반에 대해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다.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게 했다.

지금도 햄버거를 먹으면 그 때 일이 생각난다. 앞으로 살면서 다치기 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햄버거를 베어 물 수는 없을 것이다. 그렇지만 앞으로 어설픈게 앙~ 하고 햄버거를 베어 무는 순간 소소한 행복은 다 치기 전과 달리 매번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.

